



2012년 6월 5일

투자전략 Daily

- 투자전략 | 김정훈 ☎ 3276-6230
- 시 황 | 박소연 ☎ 3276-6176
-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 이머징마켓 | 윤향진 ☎ 3276-6280
- 경제분석 | 전민규 ☎ 3276-6229
- 계량분석 | 노근환 ☎ 3276-6226
- 파생상품 | 안 혁 ☎ 3276-6272
-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 투자전략

Banking Union은 무엇인가?

• 채권분석

하반기 전망: 디레버리징은 아직 진행형

• 이머징마켓 동향

스펙시트와 경기하강, 중화권 증시 급락
중국 5월 PMI, 내수위축과 물가하락 반영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대한항공 외 5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SK텔레콤 외 5종목

• 산업/기업분석

자동차
리노공업, 아이테스트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증시 캘린더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05/25(금)	05/29(화)	05/30(수)	05/31(목)	06/01(금)	06/04(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824.17	1,849.91	1,844.86	1,843.47	1,834.51	1,783.13	
	등락폭	9.70	25.74	-5.05	-1.39	-8.96	-51.38	
	등락종목	상승(상한)	530(4)	516(4)	305(8)	373(11)	347(4)	95(7)
		하락(하한)	290(3)	307(3)	516(1)	444(2)	476(2)	775(2)
	ADR	79.44	81.23	79.47	76.80	75.05	67.93	
	이격도	10 일	99.38	101.13	101.15	101.06	100.63	97.81
		20 일	95.93	97.60	97.69	98.02	97.96	95.74
	투자심리	50	60	60	60	50	50	
	거래량 (백만 주)	381	321	399	442	329	387	
	거래대금 (십억 원)	3,486	3,699	3,622	4,564	3,473	4,860	
코스닥	코스닥지수	462.40	470.02	469.62	471.94	472.13	450.84	
	등락폭	6.68	7.62	-0.40	2.32	0.19	-21.29	
	등락종목	상승(상한)	631(20)	615(26)	359(20)	427(18)	447(17)	95(23)
		하락(하한)	298(1)	329(1)	560(1)	507(7)	461(1)	886(5)
	ADR	85.60	87.47	85.66	81.49	80.22	73.07	
	이격도	10 일	99.76	101.81	101.96	102.31	102.26	97.61
		20 일	97.17	98.86	98.87	99.50	99.70	95.61
	투자심리	40	50	50	60	60	60	
	거래량 (백만 주)	446	402	508	537	488	545	
	거래대금 (십억 원)	1,527	1,353	1,586	1,523	1,410	1,584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208.6	813.9	1,187.3	206.3	224.7	371.2	79.4	44.3	261.4	682.6
	매도	2,351.3	1,089.7	1,279.2	148.6	218.1	515.4	64.5	45.4	287.3	172.1
	순매수	-142.7	-275.8	-92.0	57.6	6.6	-144.1	14.9	-1.1	-25.9	510.5
	06월 누계	-19.7	-478.0	-58.2	78.3	-12.3	-102.0	-19.9	15.0	-17.3	555.8
	12년 누계	-2,495.2	6,417.9	-1,525.6	528.4	1,331.2	-2,803.8	55.6	438.9	-1,075.8	-2,397.1
코스닥	매수	1,466.4	53.5	62.7	5.0	11.6	27.0	3.7	1.6	13.8	16.3
	매도	1,455.5	66.3	63.1	8.3	10.1	27.6	1.4	4.7	11.1	14.1
	순매수	11.0	-12.8	-0.4	-3.3	1.5	-0.5	2.4	-3.1	2.7	2.2
	06월 누계	25.9	-34.0	2.0	-1.6	4.2	-2.0	1.8	-2.6	2.2	6.1
	12년 누계	1,059.0	-52.7	-616.7	-71.1	1.2	-407.0	-24.5	-52.7	-62.6	-389.5

Banking Union은 무엇인가?

6월 월간 밴드	1,750-1,900pt
2012 연간 밴드	1,650-2,250pt
12MF PER	8.1배
12MF PBR	0.98배
Yield Gap	9.1%P

- ▶ KOSPI200 정기변경 현황 및 편출입에 따른 영향 정리
- ▶ 6월 6일 공식제안될 Banking Union의 정책 정리 및 합의가능성
- ▶ 점차 구체적인 정책이 부각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 6월 7일 스페인 국채 발행은 부정적

KOSPI200 편입은 유동성 측면에서 호재

■ KOSPI200 정기변경에 따른 영향

한국증권거래소는 KOSPI200 지수 정기변경(6월 15일 편입예정)을 발표했다.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KOSPI200 ETF 규모만 7.4조원을 상회하는 만큼 KOSPI200 지수 정기변경은 개별주식의 유동성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이벤트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과 같이 거래대금 축소와 함께 하락하는 장에서 KOSPI200 지수 편입은 개별주식에 호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에 이미 현대위아, 만도 등 편입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만큼 단기간에 KOSPI200 정기변경에 따른 상승세는 제한될 것으로 보여진다.

<표 1> KOSPI200 정기변경 결과

(단위: %, 의석수)

섹터	편입		섹터	제외	
	코드	종목명		코드	종목명
에너지/화학	005950	이수화학	건설/기계	071970	STX메탈
	000430	대원강업		008730	울촌화학
자유소비재	060980	만도	에너지/화학	025850	KPX화인케미칼
	011210	현대위아		016800	퍼시스
정보통신	103130	웅진에너지	자유소비재	017900	광전자
	020150	일진머티리얼즈		001210	금호전기
조선/운송	082740	두산엔진	정보통신	004130	대덕GDS
	033920	무학		005680	삼영전자
필수소비재	005690	파미셀	철강/소재	084010	대한제강
	128940	한미약품		002030	아세아시멘트
	009420	한올바이오파마		003640	유니온스틸

자료: KRX

<표 2> KOSPI200 관련 ETF 현황

(단위: 억원)

종목명	시가총액	종목명	시가총액
KODEX 200	30,496	KOSEF 200	3,033
KODEX 레버리지	12,546	파워 K200	2,394
TIGER 200	6,371	아리랑 200	2,039
KINDEX200	3,877	KStar 200	1,056

자료: 한국투자증권

KODEX 레버리지의
실효규모는
12,546*2배

〈표 3〉 KOSPI200 편입, 제외에 따른 영향 추정(KOSPI200 ETF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코드	종목명	KOSPI200 비중	추종자금 규모 (A)	평균 거래대금 (B)	추종자금 비교 (A/B)
신규	A011210	현대위아	0.39%	288	399	72%
신규	A060980	만도	0.33%	243	258	94%
신규	A082740	두산엔진	0.06%	47	31	154%
신규	A128940	한미약품	0.04%	31	14	228%
신규	A005690	파미셀	0.04%	27	52	53%
신규	A000430	대원강업	0.04%	26	8	332%
신규	A103130	웅진에너지	0.03%	26	93	28%
신규	A005950	이수화학	0.03%	25	14	179%
신규	A020150	일진머티리얼즈	0.03%	22	23	97%
신규	A009420	한올바이오파마	0.03%	20	23	86%
신규	A033920	무학	0.02%	18	11	160%
제외	A003640	유니온스틸	-0.01%	-5	1	-355%
제외	A071970	STX메탈	-0.01%	-6	3	-176%
제외	A025850	KPX화인케미칼	-0.01%	-7	5	-146%
제외	A001210	금호전기	-0.01%	-7	3	-216%
제외	A017900	광전자	-0.01%	-8	5	-149%
제외	A084010	대한제강	-0.01%	-8	26	-31%
제외	A008730	울촌화학	-0.01%	-10	1	-730%
제외	A002030	아세아시멘트	-0.02%	-14	2	-717%
제외	A005680	삼영전자	-0.02%	-14	3	-496%
제외	A016800	퍼시스	-0.02%	-17	9	-188%

자료: 한국투자증권

■ 스페인 국채 금리에 대한 우려

KOSPI가 6월 4일 2.8% 급락하였다. 그리스, 스페인 재정위기 부담 뿐 아니라 미국 경제지표가 악화되면서 KOSPI는 건설업종 등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수급측면에서
외국인투자자의 변화가
기대된다.

다만 점차 외국인 투자자 등의 수급이 개선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5월 현물을 4조 원이나 매도했던 외국인 투자자가 6월 4일 9,951억 원어치의 지수 선물을 대량 순매수했다. 또 EPFR에 따르면 한국 관련 글로벌 4대펀드에서 4주째 자금유출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강도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2011/11/09 이태리 국채 금리 7%가 중요하다"라는 글에서 언급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스페인 국채 금리가 7% 가깝게 상승하고 있는 점은 부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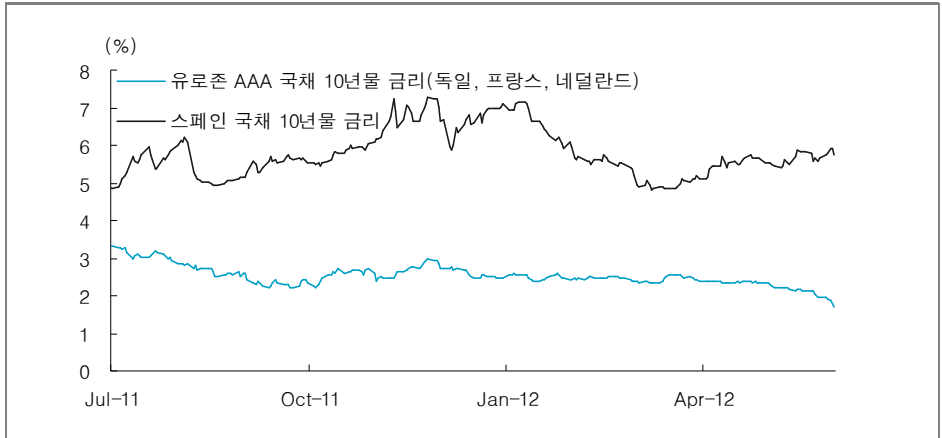
LCH.Clearnet은 10년 AAA등급 벤치마크와 450bp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담보를 요구할 예정이다. 추가적인 담보요구는 15% 수준이나 CDS 변화, 채권 시장가치 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다.

참조 : 2010/10/15일 RP 청산서비스를 위한 국가별 신용리스크에 대한 관리,
http://www.lchclearnet.com/member_notices/circulars/2010-10-05.a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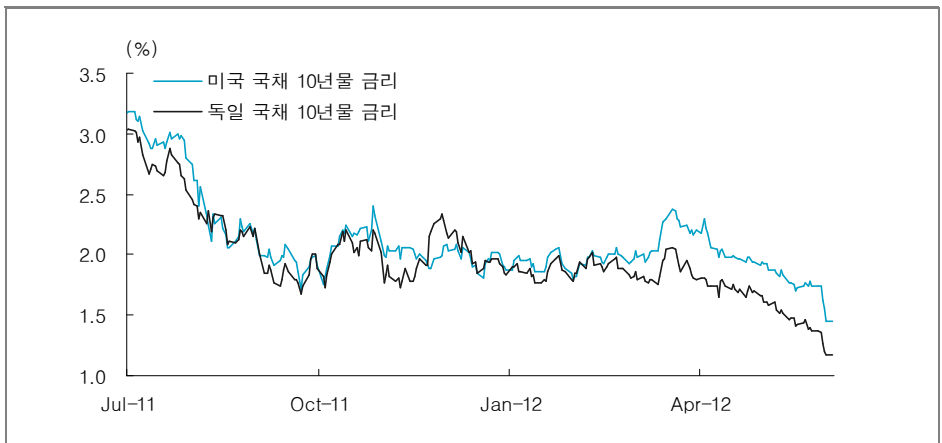
그러나 스페인 국채에 대한 추가 담보요청 등이 우려스럽다

스페인 국채금리 10년물 금리는 아직 7.0%에 미치지 못하는 6.53%이지만 AAA 국채 10년물 금리와 450bp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따라서 LCH.Clearnet 등 청산소는 언제라도 추가담보설정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글로벌 유동성 측면에서 약재이다. 2011년 11월 9일에 LCH.Clearnet가 이태리국채에 대한 추가담보설정을 요구하면서 글로벌 증시는 하락세가 재차 나타났었다.

[그림 1] 스페인 국채와 유로존 AAA 국채 금리 추이 -450bp 이상 차이나



[그림 2] 미국, 독일 국채 금리 추이 - 독일 국채 강세 두드러져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유로존내에서 돈이 독일로 몰리면서 독일 국채 강세 두드러져

<표 4> 이태리 국채 10년물 금리 7% 돌파 전후 상황

날짜	국가	내용
11/04	이태리	베를루스코니 총리, IMF의 자금 지원 제안이 필요하지 않다고 발언함, IMF의 경제개혁안 감독은 수용함
11/05	이태리	로마에서 총리 사퇴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 발생, 수만명의 야당 지지자의 반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11/07	이태리	8일 예정된 2010년 예상지출 승인안 투표에서 여당이 패배할 가능성 높아져,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리더십 약화
11/08	이태리	베를루스코니 총리, 신규 재정긴축안에 대한 의회 의결 이후에 사임하겠다고 제안함,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양상
11/09	이태리	이태리 10년물 국채 금리가 7%를 상회함, ECB의 이태리 국채 매입에도 좀처럼 하락하지 않는 양상임
11/09	이태리	선물거래소 청산기관 LCH Clearnet, 이태리 국채 금리 급등으로 이태리 국채에 대해서 추가 담보설정을 요구함
11/10	이태리	이태리 국채, ECB의 직매입과 50억유로 1년만기 국채 입찰 성공으로 10년물 금리가 6%대로 하향 안정됨
11/11	이태리	이태리 상원, 국유자산 매각, 노동시장 유연화(연금연령 상향), 공공서비스 민영화 등 재정개혁안 승인
11/11	이태리	이태리 10년물 국채 금리, 전일 6.89%에서 6.45%로 하락함, 이태리 증시 3.7% 상승함, 글로벌 증시 반등
11/12	이태리	이태리 하원, 재정개혁안 승인, 베를루스코니(75) 총리는 공식적으로 사임, 이태리 국채 금리 하락 기대 높아져

자료: 한국투자증권

■ ECB에 대한 정책 기대 - 유로본드가 안되면 Banking Union이라도

ECB는
통화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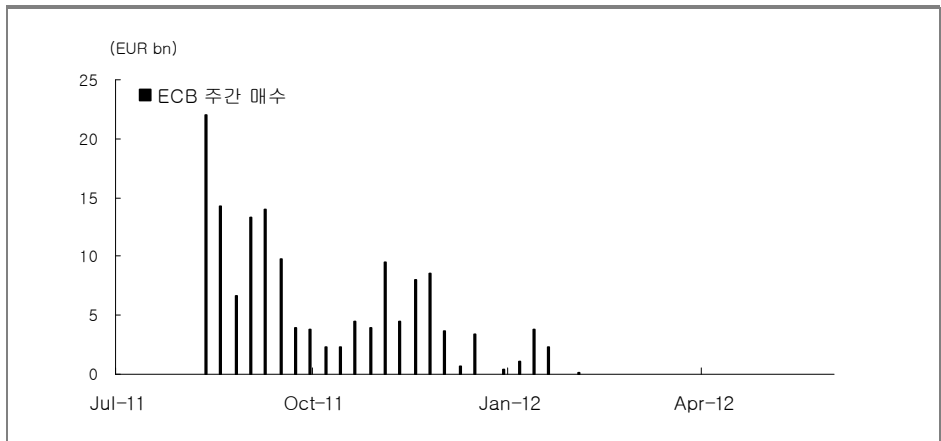
ECB는 유로존 채권 매입 프로그램(SMP)도 12년 2월 이후 중단한 상황이다. 또 2차 LTRO 이후 ECB는 3차 LTRO를 거론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지금은 ECB의 통화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책선택지가
많지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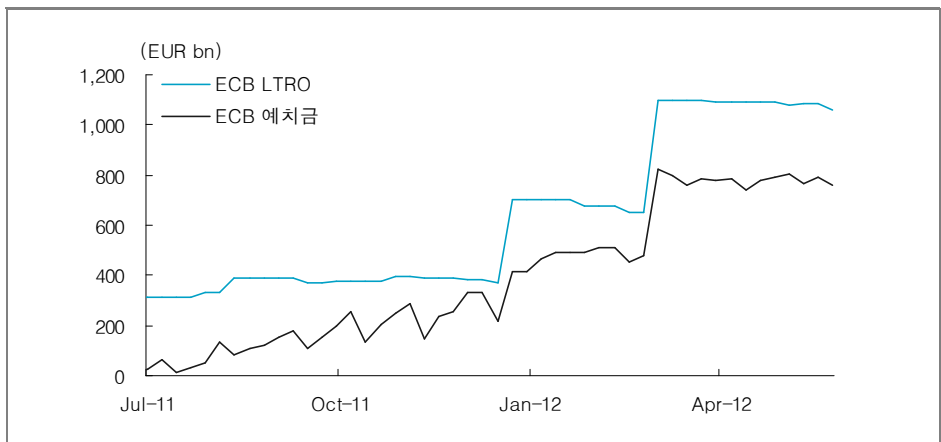
미국 국채 금리보다 독일 국채 금리가 더 낮은 이유는 ECB의 통화정책의 필요성이 미 FRB의 통화정책 필요성보다 더 시급하기 때문이다. 비록 미국 고용지표가 5월 악화되면서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졌지만 ECB가 먼저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만 ECB의 통화정책선택지는 많지 않다. ECB는 유로존 국채 매입에 따른 도덕적해이를 근거로 국채 매입 프로그램(SMP)을 우려하고 있다. 또 ECB는 시중은행 예치금의 규모를 고려할 때 유로존 은행 모두에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3차 LTRO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모든 유로존 시중은행이 유동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스페인 등 시중은행이 국지적으로 유동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림 3] ECB의 유로존 국채 매입 프로그램(SMP) 2월 이후 중단됨



[그림 4] LTRO 자금이 ECB 예치금으로 환수되고 있음



유로본드 다음으로
Banking Union이 부각됨

ECB 등의 정책선택지가 제한되다보니 최근에는 Banking Union이라는 정책이 부각되고 있다. 유로본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독일의 반대 강도도 약한 편이라는 점이 장점이다.

08년 서브프라임 위기 당시 EU는 은행 부실은 개별정부가 각각 책임지는 형태로 확정되었다. Banking Union은 은행 부실에 대한 책임을 17개 유로존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자는 정책이다. ESM 등을 이용하는 은행구조조정펀드, 시중예금 EU 등 공동보증, 중앙 은행규제기관, 중앙 은행감독권 등이 선제조건이다.

긍정적인 효과로는 그리스, 스페인 등의 예금 인출이 멈출 수 있다. 개별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예금 인출이 이어지고, 예금 인출에 따라 은행 부실이 심해지고, 은행 부실로 개별정부의 재정위기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Banking Union은 중장기적으로 의미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유로본드와 마찬가지로 Banking Union을 독일은 찬성하지 않고 있다.

<표 5> 죄수의 딜레마 게임 - 먼저 예금인출해야 한다

(단위: pt)

	예금 유지	예금 인출
예금 유지	(100,100)	(50, 100)
예금 인출	(100,50)	(70,70)

자료: 한국투자증권

독일이 양보해야 하는
이유 : 어차피 독일이
손해보는 게임이다

■ 결국 독일이 양보해야 한다

유로존이 붕괴되면서 유로화는 프랑스, 이태리 등이 그대로 보유하고 독일만이 마르크화를 기반으로 유로존에서 나가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 1) 독일 무역수지 적자
 - 마르크화 강제로 독일 수출 감소, 제조업 경기 둔화
 - 실질임금 상승, 내수확대로 독일 수입 증가
- 2) 독일 대외투자자산 가치 감소
 - 독일 가계, 기업, 정부 등이 보유한 해외 유로화 채권 가치 감소
 - 해외투자기업 손실 확대로 부도 가능성 증가

독일은 유로존이 붕괴한다면 대규모 대외자산 손실과 무역수지 적자 급증을 감내해야 한다. 따라서 유로존 붕괴 이전에 독일이 재정정책을 통해 내수를 확대해 역내불균형을 해소하고 여타국가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대외자산 손실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독일의 정책 변화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6월 7일에는 스페인이 10년 물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6월 6일 Banking Union 등 정책이 조기에 합의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KOSPI의 추가하락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KOSPI는 단기급락으로 P/B 1배를 하회할 정도로 하락했기에 분할매수에 적합한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Appendix
- 전주 주요일정

날짜	국가	내용
05/24	이란	이란 핵협상 결렬, 우라늄 농축 중단과 의료용 동위원소, 핵안전 협력, 민간항공기 부품 제공을 제안했으나 결렬
05/24	미국	주간 실업수당 신청건수 37만건으로 전주 대비 0.2만건 감소, 고용회복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음
05/24	미국	4월 내구재 주문(운송장비 제외)은 0.6% MoM, 예상치 0.9%를 하회, 자본설비 주문 감소가 두드러져
05/24	미국	더들리 연준 총재, 지금처럼 미국 경제 개선세가 이어지면 추가로 통화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기 어려워
05/25	그리스	그리스 5개 여론조사 결과, SYRIZA의 지지율이 30%로 1당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부각됨
05/25	스페인	S&P, 스페인 은행 신용등급 하향 조정, 4월 30일 은행 신용등급 하향 조정 이후 Bankia 등 추가 신용등급 하향
05/25	스페인	스페인 정부, 부실은행 Bankia에 190억유로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됨, Bankia 지분 90%를 차지할 전망
05/25	스페인	스페인 정부, 카탈루냐 등 지방정부들이 자금 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할 예정
05/25	미국	고급주택업체 톨브라더스 실적 써프라이즈에 힘입어 10% 상승, 주택시장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05/26	한국	김석동 금융위원장, 공매도 대량포지션 보고제도 도입해 공매도를 악용한 시장 교란에 강력 대처할 예정
05/28	중국	중국공산당, 보시라이 전 총칭시 서기 사퇴 이후 망명, 외화반출 통제를 위해 관료의 해외출국을 규제할 예정임
05/28	중국	중국, 일본 정부는 위안화와 엔화를 직접 거래하는 시장을 6월 도쿄와 상하이에 각각 설치하는 방안을 협의 중
05/28	중국	베이징시, 3일(72시간)이내의 단기체류 외국인에게 비자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인민망 보도함
05/28	스페인	스페인 국채 10년물 금리 6.47%로 마감, Bankia 추가 구제금융 등 우려가 높아져 국채 금리가 18bp나 급등함
05/29	한국	공매도 규제, 중국 재정정책 기대감 등이 반영되면서 KOSPI는 조선, 화학 등 단기급락업종을 중심으로 반등함
05/29	한국	공정위 500m내 편의점 중복출점 규제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매출 성장 둔화 우려로 GS리테일 주가 -7.72%
05/29	한국	유니슨, 도시바를 대상으로 23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도시바 최대주주가 될 예정, 일본 등으로 사업확대할 예정
05/29	중국	재정부, 6월부터 절전형 에어컨, 평판TV 구매자에게 최대 400위안 보조금을 지급 예정, 자동차 보조금 기대도 높아져
05/29	EU	EU집행위원회, '유럽 은행 통합 구제안'을 6월 6일 공식적으로 회원국에 제안할 예정, 다만 실행시기는 2014년 이후임
05/29	미국	칼 아이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체사피크에너지 지분을 7.6% 매집함, 이사회체 등 경영권에 대한 관심이 높음
05/29	미국	컨퍼런스보드는 5월 소비자신뢰지수 64.9, 4월 68.7, 예상치 70.0 하회, 다만 향후 고용 전망은 일부 개선됨
05/29	스페인	에간-존스 신용평가사,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한달간 3번째로 강등, BB-에서 B로 하향, 유로화 약세 나타남
05/29	중국	중국 정부는 08~09년의 대규모 재정정책을 반복할 계획이 없다고 신화통신 보도, 철도 등 민간투자를 권장할 계획임
05/29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결정, 롬니 전 주지사는 텍사스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 승리로 대의원 1,144명을 확보함
05/30	중국	국무원, 에너지 절감/환경보호, IT, 바이오, 첨단장비 제조,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친환경 자동차 신항산업 투자 결정
05/30	그리스	그리스 잡지 여론조사 결과, 시리자 30%, 신민당 26.5%로 시리자의 승리로 예상됨, 불확실성 지속됨
05/30	EU	ECB, 방키아를 대출을 통해 지원해달라는 스페인 정부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FT 보도, ECB는 요청이 없었다고 부인함
05/30	이태리	이태리 국채입찰 결과, 10년물 국채 발행금리 6.03%로 1월 이후 최고치, 스페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6.669%로 상승함
05/30	미국	4월 미결주택 매매지수가 95.5로 -5.5% MoM, 3월 4.1%, 예상치 0.0%를 하회, 비록 14.4% YoY이나 회복속도가 둔화됨
05/30	미국	브라질 중앙은행, 극심한 경기침체에 기준금리를 연 9%에서 8.5%로 50bp 인하, 11년 8월 이후 7차례에 걸쳐 인하함
05/31	한국	대우조선해양, 10억달러 규모 FLNG선 수주 유력, 말레이시아 국영석유회사 Petronas가 발주한 프로젝트 수주할 전망
05/31	스페인	IMF가 스페인과 구제금융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다우존스 보도함, 그러나 IMF가 스페인과의 구제금융논의를 부인함
05/31	독일	5월 실업률은 6.7%, 예상치 6.8% 하회, 1998년 이후 최저치, 독일의 경기는 여타국가와 달리 양호한 상황
05/31	미국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1만건 증가한 38.3만건, ADP 민간고용 13.3만명, 예상치 15만명 하회, 고용회복 둔화
05/31	미국	소매업체 5월 매출 호조, 2위 소매업체 타겟의 경우 동일점포 매출 4.4% 증가, 예상치 3.5% 상회, 소비심리 회복 나타나
06/01	EU	유로존의 5월 제조업 PMI 45.1, 4월 45.9 하회, 10개월째 하락세, 독일 5월 제조업 PMI는 3년 만에 최저치 기록함
06/01	중국	중국 6월 PMI 제조업지수 50.4, 5월 53.3, 예상치 52.0 하회, 신규주문은 49.8로 11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점 하회
06/01	미국	5월 비농업취업자수 6.9만명 증가, 예상치 15만명 하회, 2011년 5월 이후 최저치, 실업률 역시 8.1%에서 8.2%로 상향
06/01	미국	ISM 5월 제조업 지수 53.5, 예상치 53.8 하회, 미국 제조업 경기가 계속 성장하고 있으나 속도는 둔화됨
06/01	미국	다우산업평균 274.88pt, 2.22% 급락, 다우지수는 연간기준 (-)로 반전함, 나스닥지수는 연초대비 +5.8% 유지
06/01	아일랜드	아일랜드 국민투표 결과 찬성 60.3%, 반대 39.7%로 EU 재정협약을 비준함, 그리스와 달리 재정긴축에 협조적임
06/03	EU	아시아 중앙은행, 외화보유고 다변화 차원에서 확보했던 유로화 비중을 4월 이후 축소하고 있음, 자국 통화 강세 유도
06/04	중국	4월 비제조업 PMI 56.1, 3월 58.0 하회, 중국 제조업 뿐아니라 비제조업도 점차 둔화되고 있는 양상
06/04	중국	5월 CPI 3.2%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 대출금리만 내리는 '비대칭' 금리 인하를 단행할 전망
06/04	한국	KOSPI200 정기변경, 만도, 웅진에너지, 현대위아 등 11개 종목이 코스피 200 지수 신규 편입, 이마트는 편입되지 않음
06/04	스페인	스페인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 유로존 회원국의 재정정책을 총괄하는 중앙기구를 창설하자고 제안, 독일안을 수용함

하반기 전망: 디레버리징은 아직 진행형

■ 디레버리징은 아직 진행형

금융위기가 발생한지 벌써 4년 차이다. 곧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는 변변히 틀리고 있다. 우리는 금리가 계속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데는 보다 유럽 발 위기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현상보다 보다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채를 통해 높은 성장률을 유지해온 선진국은 중기적으로 부채를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경제 또한 가계부채와 공사채는 증가했으나, 경제전체의 부채/명목GDP 비율은 2009년 1분기를 고점으로 하락하고 있다. 부채 디레버리징은 자금수요의 감소와 저축의 증가를 의미한다. 부채 디레버리징이 지속되는 한, 금리가 기초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리스크 요인: QE3와 재정절벽(Fiscal Cliff)

펀더멘탈 관점에서는 하반기 금리가 오를 요인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시장 금리를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은 미국의 QE3 시행 가능성이다. 그러나 양적완화는 기본적으로 본원통화를 늘려 디플레이션을 방지하는 정책이다. 인플레이션 압력과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FRB가 QE3를 발표할 경우, 시장은 연준이 더 이상 통상적인 통화정책을 포기하고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명목성장률을 높이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비교적 경기회복이 양호한 미국이 이 같은 리스크를 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당분간 QE3 시행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오히려 현행 법률 하에서는 미국은 2013년부터 큰 폭의 재정긴축이 예정되어 있다. 아직 시간이 남았다는 점에서 실제 실현 가능성은 낮으나, 11월 6일 대선을 앞두고 있어 연말까지 양당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 결론: 금리상승보다 추가하락 가능성 열어둬야

글로벌 교역량이 줄어들면서 수출이 둔화되면 정책당국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2013년 균형재정을 국정목표로 삼으면서 추경편성을 꺼려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과 금융위는 가계부채 문제를 이유로 금리인하에 주저하고 있다. 경기가 나빠지는데, 부양책이 당분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BM 대비 중립이상 포지션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추후 경기부양책이 나오더라도 정부가 균형재정 달성을 강조하면서 추경보다는 금리인하가 먼저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최근의 금리 급락에도 하반기 금리상승보다는 추가 금리하락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상황으로 판단한다.

*상기 보고서는 2012년 6월 3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스펙시트와 경기하강, 중화권 증시 급락

- ▶ 중국, 2분기 경제성장률 8% 이하로 하락 가능성 - 상해증권보
- ▶ 중국 상해증권거래소, “구제적인 국제판 출범계획 아직 없다”
- ▶ 홍콩, 6월 9개사 IPO 예정, 총 조달규모 659억홍콩달러에 그쳐, IPO 시장 급랭

상해종합지수 큰 폭 하락
석탄, 보험, 해운주 큰 폭
내림세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가 2.7% 급락하며 6개월래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미국의 고용지표 쇼크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비교적 견조한 수치를 유지해오던 중국 비제조업 PMI마저 두 달 연속 하락하고 JP모건이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잇따라 하향조정하면서 매도압력이 확대됐다. JP모건은 지난 5월 연간 성장 전망치를 8.2%에서 8%로 내린 후 최근 다시 7.7%로 하향 조정했다. 국제판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는 루머도 매도심리를 부추겼다. 조만간 정제유 가격이 인하될 것이라는 언론보도로 정유주가 급락했고 주요 해외증권사의 산업 투자 의견 하향으로 기계, 장비업종도 크게 내렸다. 그 외 창고(-4.7%), 석탄채굴(-4.7%), 보험(-4.4%), 해운(-4.3%), 항공(-4.1%), 부동산개발(-3.6%), 금속(-3.5%), 석유화학(-3.4%), 건설(-3.3%), 증권(-3.3%), 유통(-3.0%), 전자(-2.9%), 은행(-2.4%), 음식료(-2.0%) 등 전 업종이 약세를 나타냈다.

■ 홍콩 시장

홍콩H지수 나홀 연속 약세
보험, 건설, 자동차주 급락

홍콩 H지수는 대내외 약세가 겹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해 4거래일 연속 약세를 기록했다. 스페인과 그리스 관련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미국의 고용지표가 시장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하면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강화됐다. 중국 제조업 PMI 하락과 주말에 나왔던 국제판 도입 관련 소식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ECB 회의에서 효과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과 중국정부가 대규모 투자에 나서지 못해 현재 글로벌 주식시장의 구원투수가 없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확산됐다. 모든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중국인민재산보험(-7.2%), 평안보험(-5.8%), 인수보험(-4.9%), 신화보험(-2.4%) 등 보험주가 크게 내렸다. 철도건설과 자동차 등 최근에 정책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던 업종도 큰 폭으로 반락했다. 반면 청도맥주(+2.0%)와 화능국제전력(+2.5%) 등 식품, 유틸리티 관련주는 강세를 보였다.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 분	6/4(월)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2,308.55	-2.73	-2.24	-2.68	4.96
홍콩 H	9,375.33	-2.55	-2.82	-3.21	-5.65
인도 SENSEX	15,925.92	-0.25	-2.99	-1.80	3.05
러시아 RTS	1,212.90	-1.18	-5.03	-2.38	-12.23
브라질 보베스파	53,402.90	-2.00	-1.95	-2.00	-5.90
베트남 VN	416.65	-2.83	-4.32	-2.92	18.52
MSCI 이머징마켓	893.86	-1.37	-1.71	-1.37	-2.46

주: 4일 오후 5시 50분 기준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종목/테마	내용
한국전력(015760) ▶23,150(+2.43%) 한국가스공사(036460) ▶41,350(+2.35%)	요금 인상 기대감에 강세 - 여름철 전력난 및 실적 악화를 대비하기 위한 요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요금 인상 기대감 및 불안한 주식 시장 상황에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 부각되며 동반 강세 - 요금인상은 전력회사의 매출액 증대, 수요조절을 통한 비용 하락 효과가 있어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대응책으로 평가
빙그레(005180) ▶70,000(+5.26%)	국내 유제품 브랜드 최초로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견조한 오름세 - 일본 유제품 1위 업체인 시코쿠유업과의 기술제휴를 통해 국내 유제품 브랜드 최초로 동사의 제품인 '바나나맛우유'가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견조한 오름세 - 일본 진출과 동시에 현지 최대 편의점업체인 로손의 8,000개 점포에 입점이 확정돼 연간 300억 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
샤인(065620) ▶12,500(+9.17%)	2차전지 상용화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차세대 전지기술 융합연구단이 동사 및 LG화학, 세진이노테크와 함께 2차전지 원천기술을 상용화한다는 소식에 신고가 경신 - 동사는 파우치형 플렉시블 필름 2차전지 제조기술을 이용해 내년부터 플렉시블 리튬이온 커패시터를 사업화할 예정
영진인프라(053330) ▶1,225(+5.15%)	대규모 수주 기대감에 견조한 오름세 - 말레이시아에서 새라왁(Sarawak) 6대강 개발 및 브루나이 인공섬 건설 연계 프로젝트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견조한 오름세 - 이로써, 새라왁주 6개 주요 강과 해상에서 채취한 모래와 자갈 등의 골재를 세계 최대 석유부국인 브루나이에 공급하게 됐으며, 공급 규모만 총 4,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창업투자 관련주	대권 주자들의 창업 관련 공약 기대감에 강세 - 올해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자들의 창업관련 공약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강세 - 우리기술투자(041190), SBI인베스트먼트(019550), 제미니투자(019570), 에이티넘인베스(021080), 한국캐피탈(023760),대성창투(027830, 이상 상한가) 등 초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유망종목: 대한항공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대한항공 (003490)	44,500 (-2.7)	45,750 (6/04)	- 외국인의 환승수요 및 미주노선을 중심으로 국제선 여객수요의 안정적 성장세 지속 예상 - 원/달러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2분기 수익 개선 예상 - 여행 성수기 진입과 런던 올림픽 등으로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전망
KG모빌리언스 (046440)	4,440 (-2.2)	4,540 (5/18)	- 국내 1위의 모바일 결제업체로 모바일 기기 확산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로 안정적인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전망 - 홈쇼핑, 소셜커머스 등 실물 고객사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영업으로 고성장세 예상
인프라웨어 (041020)	8,560 (-13.0)	9,840 (5/03)	- 모바일 오피스는 높은 편의성과 호환성을 인정받고 있어 향후 판매할 고객사의 주력 모델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며, 스마트폰 저가형에는 에디팅 기능이 빠진 뷰어 모델로 대응 가능하므로 추가적 매출 확대 가능 - 신규 사업으로 오픈 마켓 및 출판사업에 대한 기대 유효. 단기 낙폭과대에 따른 가격 메리트 부각 가능성 상
에스엘 (005850)	21,250 (+21.1)	17,550 (4/24)	- 성공적인 고객다변화, LED 램프의 시장 확대. 생산능력 확대 등으로 성장세 가속화 전망 - 안정적인 수주 증가세와 제품믹스 개선 등에 힘입어 수익성 개선 예상 - 전속고객에 대한 높은 매출비중, 높은 경쟁강도 등의 할인요인을 감안하더라도 경쟁업체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 및 자산가치 부각 가능성 상존
LG전자 (066570)	61,600 (-19.7)	76,700 (4/17)	- 휴대폰 부분의 경우 상반기에는 1)저가폰 축소, 2)마케팅비용 효율화, 3)비용절감 등을 통해 흑자기조 정착에 초점. 하반기에는 flagship이 기대되는 3G 스마트폰 출시를 통해 수익성 개선 예상. 또한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요인(기술→원가, S/W→H/W) 변화, 선두업체와의 기술적 갭 축소, HTC, Motorola, RIM 등 경쟁업체의 부진 등을 주목할 필요 - TV부분의 경우 일본 TV 업체들의 경쟁력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이는 가운데 3D FPR TV를 중심으로 한 제품믹스 개선으로 수익성 개선 예상. PBR이 1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파트론 (091700)	12,950 (-6.8)	13,900 (3/09)	- 삼성전자 갤럭시S2, 갤럭시노트 판매 급증에 따른 카메라 모듈 수요 확대에 의해 동사 매출 성장세 지속 전망 - 진동 모터 및 NFC 안테나 추가 공급 등 디바이스당 ASP 개선에 따른 꾸준한 외형 성장세 유지 예상. 분기 사상 최대 실적 경신 행진, 전방산업 호조에 따른 이익 개선 모멘텀 등을 감안할 때 추가 상승 여력 상존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추천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LG전자, 대한항공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SK텔레콤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2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SK텔레콤 (017670)	126,000 (+1.2)	124,500 (5/24)	16,744	2,013	1,502	21,549	5.8
			- SK플래닛, SK브로드밴드, SK하이닉스 등의 수익 개선으로 자회사 가치 상승 예상 - 가입자당 매출액(ARPU) 증가와 LTE 경쟁 완화로 하반기 수익성 개선 전망 - 역대 최고 수준인 배당 매력도와 역사적 최저 수준인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주목할 필요				
일진디스플레이 (020760)	10,750 (-2.7)	11,050 (5/24)	521	59	56	1,801	6.0
			- 중대형 터치스크린패널 부문에서의 원가 경쟁력과 안정적인 수출 확보로 고객사내 점유율 확대 지속 - 금년 1분기 매출액은 1,180억원(YoY +149%), 영업이익은 130억원(YoY +141%)으로 급증세 시현. 모바일 기기 시장의 급성장세와 고객사의 태블릿 신모델 출시 계획 등을 고려할 때 실적 개선 모멘텀은 지속될 전망				
세코닉스 (053450)	10,500 (-14.6)	12,300 (5/10)	130	18	14	2,025	5.2
			- 중설효과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부문에서 큰 폭의 이익 성장 예상. 또한 차량용 카메라 탑재수 증가세(기존 1개에서 7~8개로 증가)와 블랙박스용 수요 증가세로 차량용 카메라 렌즈 부문의 장기 성장성 부각 가능성 - 2분기부터 본격적인 이익 성장세가 예상된다. 여타 휴대폰 부품업체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다는 점 등 감안할 때 추가 상승 여력 상존				
코텍 (052330)	10,050 (-6.9)	10,800 (5/03)	183	23	20	1,530	6.6
			- 카지노 시장 회복 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매출처 다변화에 성공. 세계 1위 업체인 Smart(세계 시장점유율 47%)에 LCD 전자칠판 독점 납품. 올해 전자칠판 매출 215억원(+75% YoY) 예상 - 작년에 법인세 감면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순이익은 정체되나, 안정적인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				
넥센타이어 (002350)	21,800 (+25.6)	17,350 (4/17)	1,784	182	140	1,382	15.8
			- 브랜드 이미지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능력 확장으로 장기 성장성 부각 가능성. 원자재 투입단가 하락에 힘입어 1분기 영업이익률은 두 자리수대 회복 예상 - 생산능력 확대로 7월부터 Mitsubishi의 Lancer(중형세단)에 OE를 제공할 계획이며, 미국 및 독일 완성차업체 등으로부터의 수주로 해외 OE(Original Equipment) 판매는 13년부터 빠르게 증가할 전망				
NHN (035420)	236,000 (+5.8)	223,000 (2/21)	2,374	720	533	12,634	18.7
			- 온라인 광고 매출의 고성장과 신작 출시에 따른 게임 부분 매출 성장으로 2012년 매출은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할 전망. 모바일에서도 확고하게 높은 검색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모바일 광고와 게임, 일본 포털 사업은 성장동력이 될 전망 - 인터넷 포털과 온라인 게임 규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주주이익 환원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추천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SK텔레콤, NHN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자동차: 견고한 펀더멘털 지속

■ 견고한 펀더멘털 지속

5월 현대차와 기아차의 총판매는 해외판매 강세와 내수시장 반등으로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다. 이러한 판매강세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 이유는 계속되는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와 우호적인 환율 때문이다. 또한 양사는 중국의 2차 소비보조금 정책(1,600cc 이하 차량 총 자동차 보조금 60억위안)의 최대 수혜주라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소형차 비중이 3분의 2로 높고 현대차의 3공장 준공이 7월로 임박했기 때문이다. 한편 5월 미국 자동차시장은 연환산 1,380만대로 올 들어 가장 부진했으나 양사는 사상 두 번째로 많은 판매대수를 기록했다. 이에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20,000원(12MF PER 10배 적용, 역사적 평균치 10% 할증)과 105,000원(12MF PER 10배 적용, 업종 평균 PER)을 유지한다.

■ 5월에도 판매 강세 지속, 내수 증가세로 반전

5월 현대는 전년동월대비 8.1% 증가한 365,501대를 판매했다. 내수판매는 신형 Santa Fe가 5,776대가 팔려 58,050대로 0.6% 소폭 증가했다. 해외판매는 해외공장 판매 강세로 9.6% 증가했다(수출 103,846대(+3.1% YoY), 해외공장 판매 203,605대(+13.3% YoY)). 기아차 역시 해외판매 강세(수출 99,191대(+21.1% YoY), 해외공장 판매 99,658대(+26.2% YoY))로 20.5% 증가한 239,599대를 판매했다. 내수판매는 K9이 1,500대 판매되며 40,750대로 7.2% 증가했다. 현재까지 K9은 4,900대가 계약 됐다.

■ 5월 미국시장 점유율 8.9%

5월 현대와 기아의 미국판매는 전년동월대비 10.6% 증가한 118,790대를 기록했다. 산업수요는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생산중단과 부품공급 부족(11년 5~8월)에 따른 기저효과로 25.7% 증가한 1,334,642대였다. 이로써 양사의 점유율은 전년동월 10.1%에서 8.9%로 하락했지만, 이는 4월까지의 누계 8.8%보다 높은 수치이다. 현대와 기아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13.2%, 7.4% 증가한 67,019대, 51,771대를 판매했다. 같은 기간 현대의 점유율은 5.6%에서 5%로, 기아의 점유율은 4.5%에서 3.9%로 하락했다. 한편 일본업체들의 점유율은 전년동월 30.4%, 전월 36%에서 36.5%로 회복했으나 여전히 2010년 연간 점유율인 38.6%를 하회했다.

*상기 보고서는 2012년 6월 3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리노공업(058470)

미제시
목표가: NA
종가(6/1): 22,200원

가장 안전한 비메모리 관련주

■ 가장 안전한 비메모리 관련주

동사는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에 사용되는 소모성부품인 probe pin과 이를 모듈화한 IC socket을 생산한다. 기본적으로 다품종 소량생산 시스템에 기반해 다양한 메모리 및 비메모리 수요에 대응 중이며, 삼성전자를 포함한 국내외 다수(500여곳)의 고객사를 두고 있다(2011년 수출 비중: 41%). 동사는 빠른 납기 대응, 높은 품질, 경쟁력 있는 원가구조를 기반으로 높은 진입장벽을 형성, 경쟁에서 앞서가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연평균 10%의 안정적인 매출 성장, 같은 기간 평균 35%의 높은 영업이익률(평균 순이익률: 28%)을 달성 중이다. 국내외 시스템반도체향 수요의 꾸준한 증가로 동사는 올해 매출 755억원(전년 대비 14% 증가), 영업이익률 38%(전년 이익률: 37%)를 예상 중이며, 2Q12F도 컨센서스(매출 196억원, 영업이익 74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14%, 10% 증가)수준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여 전분기 대비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 비메모리용 IC소켓 매출 증가가 실적 성장을 견인할 전망

삼성전자, Qualcomm, Nvidia 등 국내외 우수 모바일AP(application processor)업체들의 신제품 출시 경쟁은 동사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동사는 스마트폰, 태블릿, 울트라북 등의 모바일 기기 수요 확대에 AP를 포함한 비메모리용 IC소켓 매출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중(1Q12 비메모리향 매출 비중: 49%)이며, 반도체의 경박단소화로 제품믹스(mix) 및 수익성 또한 동반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동사는 2010년부터 Simens에 의료기기(초음파 진단기용 probe) 부품을 공급 중인데, 매출 규모(2012F 목표: 29억원)는 아직 작지만 향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규 성장동력이 될 전망이다.

■ 높은 배당메리트와 안정적인 재무구조

동사는 높은 배당률과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다. 일반적으로 매해 당기 순이익의 30~40%를 배당하는 편이며, 전년도 payout ratio (37%)를 적용할 경우 올해 시가배당률은 5%이다. 1Q12말 기준 현금은 265억원, 무차입 경영을 실현 중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동사는 현재 2012F PER 7.2배에 거래 중이다(컨센서스 기준). 2010년 하반기 이래 최저점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향후 안정적인 매출 성장성 및 높은 수익성 등을 고려하면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구간이라고 판단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낮은 유동성 때문에 6개월 일 평균 거래대금이 6.2억원에 그친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07A	40	14	16	13	1,619	0.7	17	7.7	3.5	1.5	21.5
2008A	43	14	16	11	1,468	(9.3)	17	6.3	2.5	1.0	17.6
2009A	36	10	10	8	1,061	(27.7)	13	14.1	6.7	1.6	12.0
2010A	57	22	21	17	2,228	110.0	25	7.0	3.1	1.4	21.2
2011A	66	25	24	19	2,401	7.8	28	8.9	3.9	1.6	19.6

*상기 보고서는 2012년 6월 4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아이테스트(089530)

미제시
목표가: NA
종가(6/1): 2,985원

삼성전자 비메모리 전략의 주요 수혜주

■ 국내 최대 매출 규모를 자랑하는 반도체테스트 외주업체

동사는 국내 최대 매출 규모를 자랑하는 반도체 테스트 외주전문업체로 삼성전자 시스템LSI 사업부 및 하이닉스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다. 반도체 테스트 외주산업은 IDM(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들의 전공정 투자 집중 및 출하량 확대로 꾸준히 성장하는 산업이다. 올해는 삼성전자 시스템LSI향 테스트, 특히 모바일AP(application processor)관련 매출이 동사의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한다. 2012F 매출 및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각각 18%, 39% 성장한 1,200억원, 250억원(영업이익률: 21%)을 예상 중이다. 분기 실적도 2Q12F 들어 테스트 가동시간이 전분기 대비 증가하면서 매출(290억원, 전분기 대비 17% 증가)증가가 전망된다. 특히 분기 매출이 225억원 수준을 초과하면 고정비를 대부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가파른 수익성 개선도 기대된다(2Q12F 영업이익 컨센서스: 60억원, 전분기 대비 96% 증가).

■ 시스템반도체향 테스트 매출이 실적 성장을 견인할 전망

동사는 2006년부터 삼성전자 시스템LSI 제품 테스트를 시작하여, 2011년에는 매출의 15%까지 그 비중을 늘려왔다. 올해도 모바일AP(application processor) 등 주요제품들의 꾸준한 물량 증가 효과에 힘입어 연말경에는 매출의 50%까지 그 비중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시스템LSI 투자 및 생산능력(capacity) 확대 전략은 동사의 테스트 외주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하이닉스향 테스트 매출로 안정적인 수익 기반 형성

동사는 2003년 이래 이어져오고 있는 메모리 테스트 매출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주요 고객사에게서 가동률을 보장받는 전략적인 테스트 외주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 기반과 고가의 테스트 장비 투자에 따른 비용 회수 관련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다. 또한 기존 주 고객사인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외에, Fujitsu(2011년 매출의 8%), Sharp(3월부터 진입) 등의 대형 해외 고객사향 매출(multi chip package용) 증가 역시 긍정적이다.

■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동사의 2012F 가이드를 적용한 2012F PER은 8.1배 수준으로, 견고한 성장 기반, 높은 수익성, 높은 진입장벽(지속적인 설비투자, 높은 테스트 품질, 다양한 제품 대응 능력 등)등을 고려하면 충분한 상승여력이 남아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빠르게 성장하는 모바일AP 사업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투자포인트라고 본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07A	58	7	4	4	58	344.5	28	NM	1.8	NM	17.4
2008A	78	16	(18)	(20)	(280)	NM	36	NM	3.0	NM	(123.3)
2009A	81	12	1	2	146	NM	34	NM	2.4	NM	11.1
2010A	96	21	6	10	273	87.1	52	NM	2.0	NM	20.3
2011A	101	18	11	9	250	(8.5)	53	13.3	4.5	1.7	12.5

*상기 보고서는 2012년 6월 4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05/25(금)	05/29(화)	05/30(수)	05/31(목)	06/01(금)	06/04(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824.17	1,849.91	1,844.86	1,843.47	1,834.51	1,783.13	
	등락폭	9.70	25.74	-5.05	-1.39	-8.96	-51.38	
	등락종목	상승(상한)	530(4)	516(4)	305(8)	373(11)	347(4)	95(7)
		하락(하한)	290(3)	307(3)	516(1)	444(2)	476(2)	775(2)
	ADR	79.44	81.23	79.47	76.80	75.05	67.93	
	이격도	10 일	99.38	101.13	101.15	101.06	100.63	97.81
		20 일	95.93	97.60	97.69	98.02	97.96	95.74
	투자심리	50	60	60	60	50	50	
	거래량 (백만 주)	381	321	399	442	329	387	
	거래대금 (십억 원)	3,486	3,699	3,622	4,564	3,473	4,860	
코스닥	코스닥지수	462.40	470.02	469.62	471.94	472.13	450.84	
	등락폭	6.68	7.62	-0.40	2.32	0.19	-21.29	
	등락종목	상승(상한)	631(20)	615(26)	359(20)	427(18)	447(17)	95(23)
		하락(하한)	298(1)	329(1)	560(1)	507(7)	461(1)	886(5)
	ADR	85.60	87.47	85.66	81.49	80.22	73.07	
	이격도	10 일	99.76	101.81	101.96	102.31	102.26	97.61
		20 일	97.17	98.86	98.87	99.50	99.70	95.61
	투자심리	40	50	50	60	60	60	
	거래량 (백만 주)	446	402	508	537	488	545	
	거래대금 (십억 원)	1,527	1,353	1,586	1,523	1,410	1,584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208.6	813.9	1,187.3	206.3	224.7	371.2	79.4	44.3	261.4	682.6
	매도	2,351.3	1,089.7	1,279.2	148.6	218.1	515.4	64.5	45.4	287.3	172.1
	순매수	-142.7	-275.8	-92.0	57.6	6.6	-144.1	14.9	-1.1	-25.9	510.5
	06 월 누계	-19.7	-478.0	-58.2	78.3	-12.3	-102.0	-19.9	15.0	-17.3	555.8
	12 년 누계	-2,495.2	6,417.9	-1,525.6	528.4	1,331.2	-2,803.8	55.6	438.9	-1,075.8	-2,397.1
코스닥	매수	1,466.4	53.5	62.7	5.0	11.6	27.0	3.7	1.6	13.8	16.3
	매도	1,455.5	66.3	63.1	8.3	10.1	27.6	1.4	4.7	11.1	14.1
	순매수	11.0	-12.8	-0.4	-3.3	1.5	-0.5	2.4	-3.1	2.7	2.2
	05 월 누계	25.9	-34.0	2.0	-1.6	4.2	-2.0	1.8	-2.6	2.2	6.1
	12 년 누계	1,059.0	-52.7	-616.7	-71.1	1.2	-407.0	-24.5	-52.7	-62.6	-389.5

주: 외국인인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통신업	25,591	전기,전자	-40,341
전기가스업	12,993	화학	-36,476
보험	10,544	건설업	-33,232
KT	18,624	SK하이닉스	-26,064
한국전력	12,654	SK이노베이션	-24,608
NHN	6,980	호남석유	-23,234
삼성화재	6,783	현대건설	-16,669
SK텔레콤	6,779	삼성중공업	-15,425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가스업	11,107	서비스업	-34,602
통신업	9,192	화학	-16,268
철강및금속	8,741	건설업	-11,919
삼성전자	15,519	SK이노베이션	-24,811
한국전력	10,070	LG화학	-15,931
기아차	9,244	호남석유	-12,953
LG생활건강	7,057	LG전자	-9,291
삼성테크윈	6,865	현대중공업	-8,946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은행	5,676	서비스업	-3,334
철강및금속	2,510	전기,전자	-2,106
금융업	1,100	건설업	-1,736
외환은행	5,163	삼성전자	-3,498
현대제철	1,941	삼성엔지니어링	-2,497
POSCO	1,789	GS	-1,528
현대중공업	1,038	현대차	-1,383
신한지주	997	호남석유	-1,134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보험	25,479	화학	-10,098
전기가스업	9,608	서비스업	-9,604
통신업	7,747	건설업	-6,533
삼성생명	24,217	삼성엔지니어링	-8,559
한국전력	7,505	SK하이닉스	-7,600
삼성전자	6,607	삼성물산	-6,868
SK텔레콤	5,853	현대건설	-5,172
현대차	3,549	LG전자	-4,135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통신업	46,458	서비스업	-56,043
보험	41,259	화학	-53,833
전기가스업	28,681	건설업	-45,223
삼성생명	29,507	SK이노베이션	-42,432
한국전력	26,579	호남석유	-41,027
삼성전자	24,575	SK하이닉스	-27,771
KT	24,291	LG화학	-26,365
SK텔레콤	20,815	현대중공업	-26,231
기아차	17,898	LG전자	-23,459
NHN	16,034	삼성물산	-22,562
KT&G	10,732	현대건설	-21,770
LG생활건강	10,712	삼성엔지니어링	-20,012
삼성화재	10,333	대림산업	-12,973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유통업	8,159	전기,전자	-96,246
서비스업	1,890	보험	-31,529
증권	1,827	운수장비	-29,297
LG전자	22,192	삼성전자	-103,987
삼성엔지니어링	14,465	LG화학	-26,133
LG	6,711	기아차	-19,403
두산	6,487	NHN	-16,102
삼성물산	6,285	POSCO	-15,235
삼성SDI	5,130	삼성생명	-14,212
현대백화점	4,991	삼성화재	-12,600
신한지주	4,891	한국전력	-11,419
S-Oil	4,777	SK텔레콤	-10,856
한전기술	4,298	현대차	-10,258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디지털컨텐츠	2,033	인터넷	-3,671
IT부품	1,204	반도체	-3,309
운송장비,부품	1,128	전문기술	-2,489
파라다이스	1,152	다음	-3,671
파트론	1,068	CJ E&M	-2,611
CJ오쇼핑	1,001	AP시스템	-2,079
에스엠	903	네패스	-1,754
게임빌	826	하이록코리아	-975

은 행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오락,문화	121	기계,장비	-798
인터넷	121	반도체	-692
의료,정밀기기	78	IT부품	-461
파라다이스	121	덕산하이메탈	-388
다음	121	네오위즈인터넷	-360
네패스	119	MDS테크	-269
위메이드	108	AP시스템	-263
오스템임플란트	78	티에스엠텍	-234

(체결기준: 백만원)

외 국 인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운송장비,부품	1,906	IT부품	-1,256
반도체	1,176	전문기술	-859
화학	968	금융	-784
성우하이텍	1,763	CJ E&M	-1,115
파라다이스	683	인터플렉스	-906
서울반도체	650	메가스터디	-517
바이오랜드	532	큐캐피탈	-470
AP시스템	456	네오위즈게임즈	-445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운송장비,부품	3,612	전문기술	-4,258
디지털컨텐츠	2,103	반도체	-4,242
출판,매체복제	2,092	인터넷	-1,414
성우하이텍	2,617	CJ E&M	-4,689
파라다이스	2,210	셀트리온	-2,905
에스엠	2,129	네패스	-2,310
게임빌	1,654	인터플렉스	-2,079
에이블씨엔씨	1,512	AP시스템	-1,949
CJ오쇼핑	1,444	다음	-1,414
씨젠	1,355	심텍	-1,392
파트론	1,061	원익IPS	-1,166
평화정공	959	하이록코리아	-1,012
서울반도체	924	성광벤드	-940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외 국 인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제약	940	소프트웨어	-3,151
컴퓨터서비스	587	인터넷	-2,452
화학	565	일반전기전자	-2,221
셀트리온	2,633	다음	-2,054
컴투스	836	지엠피	-1,916
CJ E&M	750	인프라웨어	-1,385
알에프텍	649	네오위즈게임즈	-1,076
에이블씨엔씨	467	MDS테크	-829
테라리소스	453	실리콘웍스	-793
에스맥	405	CJ오쇼핑	-738
아남정보기술	309	안랩	-568
EG	277	파라다이스	-522
인터플렉스	270	파트론	-497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신도리코	44 일	에스원	38 일
아모레G	17 일	신세계	6 일
SKC	13 일	세아베스틸	4 일
광전자	11 일	진로	3 일
KPX케미칼	9 일	두산	3 일
KB금융	9 일	종근당	3 일
대한제분	8 일	넥센타이어	3 일
삼성정밀화학	8 일	국도화학	3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이트레이드증권	42 일	한국토지신탁	15 일
동진씨미켄	8 일	이오테크닉스	9 일
동국산업	5 일	KCC건설	8 일
CJ오쇼핑	5 일	하나투어	8 일
OCI머티리얼즈	5 일	태웅	7 일
성우하이텍	4 일	게임하이	4 일
동서	4 일	모두투어	4 일
메가스터디	4 일	젬백스	4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KT	60,828	동국제강	147,800
POSCO	45,269	기아차	50,223
기아차	38,467	현대위아	34,509
삼성화재	35,621	삼성물산	32,323
KB금융	34,453	오리온	23,472
삼성전자	30,879	엔씨소프트	20,958
삼성생명	30,315	KT&G	16,277
현대차	30,044	GS건설	16,238

KOSDAQ			
기	관	외	국 인
게임빌	6,313	게임빌	9,924
파라다이스	4,210	에스엠	3,669
CJ오쇼핑	4,185	원익IPS	3,539
성우하이텍	4,099	에이블씨엔씨	2,364
컴투스	3,858	플랜티넷	2,036
JCE	3,159	안랩	1,777
서울반도체	2,943	바이로메드	1,588
태광	2,611	하나투어	1,369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섬유, 의복		1,324	862
-		-	-
-		-	-
삼성테크윈		8,238	3,005
삼성전자우		5,945	2,053
엔씨소프트		4,300	2,056
한전기술		1,176	4,298
만도		522	3,290
SK C&C		2,769	409
에스엘		2,414	286
한국가스공사		1,311	1,361
LG패션		1,625	985
코스맥스		897	1,670

KOSDAQ			
종	목	기	관
운송장비, 부품		3,612	114
화학		1,975	565
통신장비		410	173
에이블씨엔씨		1,512	467
서울반도체		924	71
이오테크닉스		669	137
알에프텍		50	649
이노와이어		364	19
젬백스		320	51
나노신소재		283	2
셀트리온제약		73	164
SBS콘텐츠헤브		167	38
코나아이		174	25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종목	기관	외국인	연속 일수
효성	14 일	대한항공	26 일
진로	12 일	CJ제일제당	20 일
일진전기	9 일	한일시멘트	18 일
삼성물산	8 일	경방	17 일
금호전기	8 일	대한제분	17 일
베이직하우스	8 일	아모레G	17 일
한화	7 일	퍼시스	17 일
아이에스동서	7 일	현대건설	15 일

KOSDAQ			
종목	기관	외국인	연속 일수
현진소재	11 일	동서	12 일
STS반도체	7 일	시그네틱스	11 일
다음	6 일	에스에프에이	10 일
하이록코리아	5 일	SDN	9 일
KCC건설	5 일	크루셜텍	9 일
큐렉소	5 일	태광	8 일
원익IPS	4 일	OCI머티리얼즈	8 일
SBS콘텐츠허브	4 일	메가스터디	8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목	기관	외국인	누적액
LG전자	-77,734	삼성전자	-124,417
SK이노베이션	-68,886	삼성화재	-52,553
삼성물산	-63,460	POSCO	-47,460
호남석유	-43,761	KT	-46,211
현대건설	-42,696	KB금융	-37,384
삼성엔지니어링	-41,258	CJ제일제당	-34,607
LG화학	-29,619	LG화학	-33,995
오리온	-18,313	현대제철	-28,811

KOSDAQ			
종목	기관	외국인	누적액
다음	-13,590	셀트리온	-7,863
CJ E&M	-3,700	씨젠	-3,798
셀트리온	-3,039	태광	-3,745
인터플렉스	-2,757	지엠피	-3,600
네패스	-2,494	크루셜텍	-2,895
STS반도체	-1,641	다음	-2,572
골프존	-1,543	OCI머티리얼즈	-2,255
유니슨	-1,324	메가스터디	-2,135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목	기관	외국인	합계	순매도액
전기, 전자	-24,889	-96,246	-121,136	
화학	-53,833	-27,661	-81,494	
건설업	-45,223	-7,257	-52,480	
LG화학	-26,365	-26,133	-52,499	
SK이노베이션	-42,432	-9,025	-51,456	
SK하이닉스	-27,771	-5,177	-32,948	
현대건설	-21,770	-321	-22,091	
LG디스플레이	-7,567	-9,306	-16,874	
대림산업	-12,973	-1,778	-14,752	
GS건설	-9,967	-1,458	-11,426	
삼성전기	-729	-7,691	-8,420	
현대제철	-2,508	-5,567	-8,075	
두산중공업	-3,713	-1,341	-5,054	

KOSDAQ				
종목	기관	외국인	합계	순매도액
반도체	-4,242	-1,619	-5,861	
인터넷	-1,414	-2,452	-3,866	
IT부품	-1,001	-1,453	-2,454	
다음	-1,414	-2,054	-3,468	
AP시스템	-1,949	-172	-2,121	
네오위즈게임즈	-520	-1,076	-1,595	
하이록코리아	-1,012	-488	-1,500	
성광벤드	-940	-67	-1,008	
MDS테크	-86	-829	-915	
와이솔	-770	-47	-817	
매일유업	-481	-235	-715	
엘엠에스	-507	-12	-519	
옵트론텍	-360	-117	-477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LG전자	164	10,628
NHN	27	6,417
삼성중공업	172	6,167
두산인프라코어	302	5,762
SK C&C	55	5,447
대한항공	117	5,375
삼성전자	4	5,364
기아차	64	5,078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80	2,719
네오위즈게임즈	45	1,323
다음	6	646
바이넥스	77	480
차바이오앤	52	455
네오위즈	26	454
씨젠	6	345
에스엠	6	253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2,901	3,576,689
POSCO	7,800	2,788,417
LG전자	39,901	2,553,662
OCI	7,770	1,546,140
현대차	4,871	1,159,397
현대중공업	2,854	742,072
기아차	9,139	725,644
삼성전기	6,721	682,199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11,496	383,404
서울반도체	6,024	134,626
덕산하이메탈	2,226	51,632
원익IPS	6,357	46,532
네오위즈게임즈	1,295	36,896
차바이오앤	3,496	30,205
안랩	252	28,885
OCI머티리얼즈	628	27,614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운수창고	2,284	금융업	-2,278
기계	2,152	화학	-1,698
은행	976	운수장비	-1,507
STX팬오션	2,138	삼성중공업	-3,022
LG전자	1,524	웅진케미칼	-1,549
외환은행	1,125	하나금융지주	-1,382
두산인프라코어	852	SK하이닉스	-771
대유신소재	827	LG유플러스	-688
수산중공업	750	우리금융	-662
신한지주	653	동국제강	-531
넥센타이어	634	KB금융	-496
한진중공업	598	LG이노텍	-468
GKL	514	삼성물산	-462

KOSDAQ			
순 증		순 감	
제약	1,633	컴퓨터서비스	-603
반도체	1,061	디지털컨텐츠	-292
전문기술	275	화학	-57
셀트리온	1,185	포스코 ICT	-562
EMLSI	708	원익IPS	-231
유진테크	291	STS반도체	-155
시공테크	220	네오위즈게임즈	-116
피에스케이	150	코리아나	-103
피에스케이	150	JCE	-86
코메론	144	루멘스	-82
주성엔지니어링	136	컴투스	-72
메디톡스	135	디오텍	-49
JW중외신약	131	게임빌	-46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05/29(화)	05/30(수)	05/31(목)	06/01(금)	06/04(월)
외국인	6,417.9	-478.0	-460.3	29.0	6.3	-17.7	-235.0	-275.8
기관계	-1,525.6	-58.2	148.8	185.3	70.6	-48.9	66.2	-92.0
(투신)	-2,803.8	-102.0	-24.6	117.1	22.3	-62.0	48.5	-144.1
(연기금)	-1,091.0	-17.1	-31.5	-7.2	28.6	-35.8	8.2	-25.3
(은행)	438.9	15.0	41.4	8.6	6.8	11.0	10.4	-1.1
(보험)	1,331.2	-12.3	77.0	41.1	-9.6	57.9	-19.4	6.6
개인	-2,495.2	-19.7	-215.8	-305.6	61.8	47.7	123.5	-142.7
기타	-2,397.1	555.8	527.3	91.4	-138.7	18.8	45.4	510.5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05/25(금)	05/29(화)	05/30(수)	05/31(목)	06/01(금)
KOSPI	1,682.77	2,051.00	1,825.74	1,824.17	1,849.91	1,844.86	1,843.47	1,834.51
고객예탁금	12072.0	14068.5	17680.2	16708.7	17031.1	16715.7	16876.3	16842.6
(증감액)	2735.7	1996.5	3611.7	-460.2	322.4	-315.4	160.6	-33.7
(회전율)	52.6	51.5	34.2	30.7	30.5	33.1	36.9	29.8
실질예탁금 증감	-292.5	-3502.6	3775.5	-238.0	378.5	-327.5	-95.9	40.2
신용잔고	4359.5	5938.3	4476.3	4265.6	4239.4	4232.4	4199.7	4172.4
미수금	240.2	192.3	187.7	159.3	141.5	121.9	110.1	133.2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05/25(금)	05/29(화)	05/30(수)	05/31(목)	06/01(금)
전체 주식형	98,056	-5,416	101	65	40	116	63	101
(ex. ETF)		-6,083	76	39	58	72	66	76
국내 주식형	68,626	-3,899	111	7	41	123	62	111
(ex. ETF)		-4,565	86	-19	59	80	65	86
해외 주식형	29,430	-1,517	-10	58	-1	-7	1	-10
(ex. ETF)		-1,517	-10	58	-1	-7	1	-10
주식 혼합형	11,268	-784	-2	-34	-1	3	-1	-2
채권 혼합형	18,652	154	-48	-5	68	-156	-35	-48
채권형	45,828	-671	102	-89	-100	177	-201	102
MMF	66,315	12,517	468	-721	-898	-1,981	-2,745	468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05/29(화)	05/30(수)	05/31(목)	06/01(금)	06/04(월)
한 국	5,784	5,509	-396	25	5	-15	-	-240
대 만	-260	1,717	-755	-15	-216	-178	-256	-90
인 도	8,490	2,183	-64	34	15	-112	-	-
인도네시아	362	271	-222	-44	12	-117	-73	-
태국	2,236	96	30	20	30	4	-25	-
남아공	39	-851	608	0	68	452	87	-
필리핀	789	366	24	2	10	15	-3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1년	05/25(금)	05/29(화)	05/30(수)	05/31(목)	06/01(금)	06/04(월)
회사채 (AA-)	4.21	3.95	3.96	3.95	3.92	3.90	3.86
회사채 (BBB-)	10.01	9.59	9.59	9.58	9.54	9.51	9.47
국고채 (3년)	3.34	3.35	3.36	3.35	3.32	3.30	3.26
국고채 (5년)	3.46	3.47	3.48	3.47	3.43	3.39	3.35
국고채 (10년)	3.79	3.73	3.74	3.73	3.69	3.64	3.37
미 국채 (10년)	1.88	1.74	1.74	1.62	1.56	1.45	-
일 국채 (10년)	0.99	0.89	0.85	0.85	0.82	0.82	-
원/달러	1,151.80	1,185.50	1,174.80	1,176.30	1,180.30	1,177.70	1,182.00
원/엔	1,492.00	1,489.13	1,477.74	1,431.00	1,503.00	1,504.00	1,512.00
엔/달러	77.24	79.61	79.50	78.94	78.53	78.35	78.19
달러/유로	1.29	1.25	1.25	1.23	1.23	1.23	1.24
DDR3 1Gb (1333MHz)	0.64	0.70	0.70	0.70	0.70	0.70	-
NAND Flash 16Gb (MLC)	2.81	2.13	2.14	2.13	2.11	2.11	-
CRB 지수	305.30	281.95	279.74	275.05	272.97	268.31	-
LME 지수	3,306.0	3,298.9	3,300.8	3,238.3	3,216.1	3,191.1	-
BDI	1,738	1,034	986	950	923	904	-
유가 (WTI, 달러/배럴)	98.83	90.66	90.76	87.82	86.53	83.23	-
금 (달러/온스)	1,566.80	1,573.20	1,548.70	1,563.40	1,562.60	1,622.1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KOSPI200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선물시장 지표

(단위: P, 계약)

	기초자산 KOSPI200	최근월물 1206월물	베이스스			거래량	미결제약정	
			이론	마감	평균		증감	
5월 29일	245.26	245.15	0.38	-0.11	-0.16	250,291	102,643	-1,067
5월 30일	244.68	243.55	0.36	-1.13	-0.63	242,605	105,579	2,936
5월 31일	244.05	243.00	0.33	-1.05	-0.44	271,549	107,626	2,047
6월 1일	242.98	242.95	0.31	-0.03	-0.65	319,506	109,387	1,761
6월 4일	236.30	236.75	0.25	0.45	0.04	317,234	108,265	-1,122

◆ 지수선물시장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계약)

	외국인	개인	기관종합					
			증권	투신	은행	보험	기금	
5월 29일	2,159	-1,490	-696	-970	154	61	61	0
5월 30일	-2,031	581	193	465	-1,114	126	500	0
5월 31일	1,133	-1,542	935	381	234	-65	495	0
6월 1일	1,256	500	-1,098	-1,061	-15	-151	31	0
6월 4일	8,427	-2,805	-778	698	-924	-19	-278	0
누적포지션	-6,562	-8,238	17,689	5,259	14,416	88	-1,923	-101

◆ 지수선물 프로그램 매매동향

(단위: 십억 원)

	프로그램 전체			비차익거래			차익거래			차익거래잔고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5월 29일	680	668	-12	629	540	-89	51	128	78	7,240	7,179
5월 30일	1,038	635	-403	610	614	4	428	21	-407	7,549	7,090
5월 31일	1,474	1,543	68	1,257	1,441	184	218	102	-116	7,638	7,064
6월 1일	773	592	-181	565	479	-86	208	113	-95	7,727	7,060
6월 4일	737	1,409	673	695	792	97	41	617	5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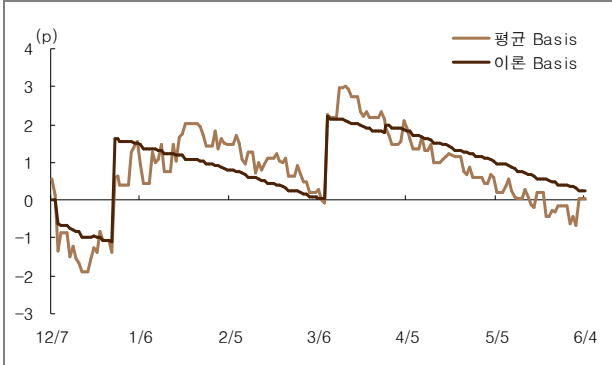
◆ 옵션시장 거래동향

(단위: 변동성(%)/가격(P))

변동성	콜옵션			행사가격	풋옵션			변동성
	미결제증감	거래량	현재가		현재가	거래량	미결제증감	
23.23	6,039	465,247	0.09	255.00	18.55	1,459	-501	23.35
22.91	-9,836	854,177	0.16	252.50	16.10	928	-272	22.36
22.82	39,445	1,101,089	0.29	250.00	13.70	2,997	-563	21.83
23.31	28,312	946,482	0.55	247.50	11.65	3,129	-643	24.93
23.87	19,844	1,081,455	0.97	245.00	9.50	12,530	-3,545	24.46
24.53	36,485	995,758	1.60	242.50	7.30	59,603	-868	22.43
25.51	25,926	700,576	2.51	240.00	5.80	81,353	-7,402	24.28
26.99	8,781	131,821	3.75	237.50	4.50	123,677	-8,838	25.55
27.29	8,689	69,096	5.05	235.00	3.60	202,501	-9,215	27.77
28.44	8,424	33,740	6.70	232.50	2.78	294,341	-12,451	29.14
30.08	1,852	8,924	8.60	230.00	2.20	931,754	-19,859	30.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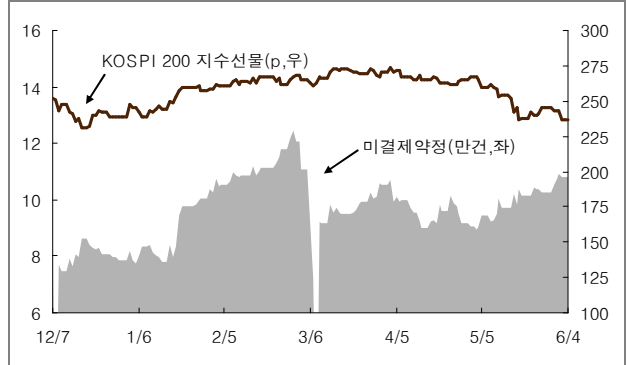
■ 주요 지표

이론 Basis & 평균 B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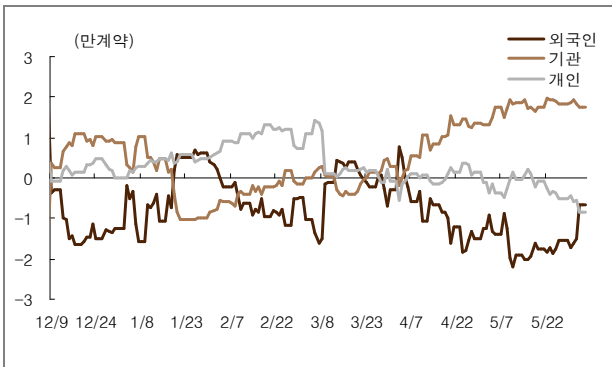
- 평균 Basis: 0.04 (전 거래일 대비 0.69 상승)
- 이론 Basis: 0.25

선물 가격 & 미결제 약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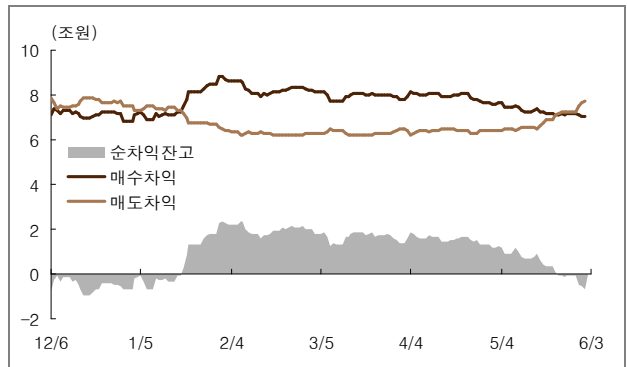
- 미결제약정: 전 거래일 대비 1,122 계약 감소한 108,265 계약
- 선물가격(236.75): 전 거래일 대비 6.20p 하락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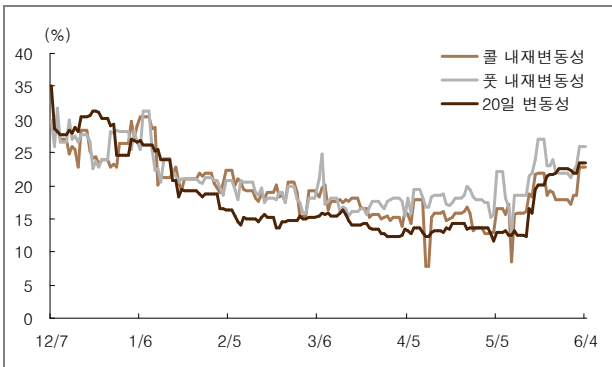
- 외국인: 8,427 계약 순매수
- 기관: 778 계약 순매도 / 개인: 2,805 계약 순매도

차익거래 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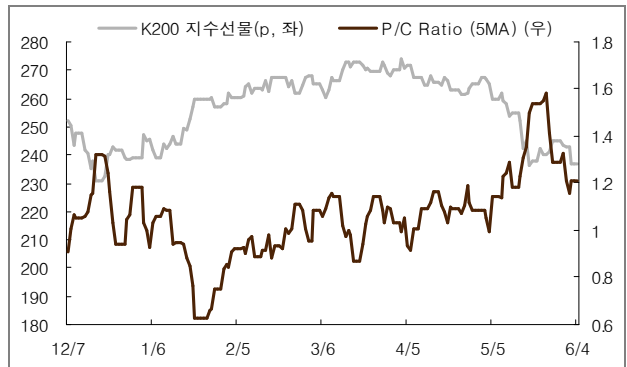
- 차익거래: 5,756 억원 순매수
- 비차익거래: 970 억원 순매수

KOSPI200 옵션 변동성 추이



- 대표 내재 변동성: 콜 22.7% / 풋 25.9% 기록
- 20일 역사적 변동성: 23.39% 기록

Put/Call Ratio



- 금액 기준 P/C Ratio(5MA): 1.21 기록

*** 데이터 불연속성은 선물 12년 6월물이 최근월물로 거래된 데 따른 것임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28	29	30	31	1
	韓> 6월 BSI-제조업 (86, n/a, 90) 6월 BSI-비제조업 (83, n/a, 85) 美> 3월 S&P/케이스실러 MoM SA (0.09%, 0.20%, 0.15%) 5월 소비자자기대지수 (64.9, 69.6, 69.2) 日> 4월 실업률 (4.6%, 4.5%, 4.5%) 中> 4월 선행지수 (99.86, n/a, 100.52)	韓> 4월 경상수지 (\$1,777M, n/a, \$3,042M) 4월 상품수지 (\$1,795M, n/a, \$3,000M) 美> 4월 미결주택매매 MoM (-5.5%, 0.0%, 4.1%)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1.3%, n/a, 3.8%)	韓> 4월 산업생산 YoY (0.0%, 0.7%, 0.3%) 美> 1Q GDP QoQ (연간화) (1.9%, 1.9%, 2.2%) 5월 ADP 취업자 변동 (13.3만, 15.0만, 11.9만) 5월 시카고 구매자협회지수 (52.7, 56.8, 56.2)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38.3만, 37.0만, 37.0만) 유럽> 아일랜드 신재정협약 국민투표 日> 4월 산업생산 YoY (13.4%, 13.7%, 14.2%)	韓> 5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2.5%, 2.5%, 2.5%) 5월 무역수지 (\$2,403M, \$2,500M, \$2,153M) 5월 수출 YoY (-0.4%, -1.1%, -4.7%) 5월 수입 YoY (-1.2%, -2.3%, -0.2%) 美> 5월 비농업부분 고용자수 변동 (6.9만, 15.0만, 11.5만) 5월 실업률 (8.2%, 8.1%, 8.1%) 5월 ISM 제조업지수 (53.5, 53.8, 54.8) 4월 건설지출 MoM (0.3%, 0.4%, 0.1%) 유럽> 4월 유로권 실업률 (11.0%, 11.0%, 10.9%) 中> 5월 PMI 제조업 (50.4, 52.0, 53.3) 5월 HSBC PMI 제조업 (48.4, n/a, 49.3)
4	5	6	7	8
韓> 5월 외환보유액 (\$310.87B, n/a, \$316.84B) KOSPI 200 총목 경기변경 유럽> 6월 섀넥스 투자자기대지수 (-28.9, -30.0, -24.5) 中> (6/3) 5월 PMI 비제조업 (55.2, n/a, 56.1)	美> 5월 ISM 비제조업지수 (n/a, 53.8, 53.5) 유럽> 4월 유로권 소매판매 YoY (n/a, -1.1%, -0.2%) 中> 5월 HSBC PMI 서비스 (n/a, n/a, 54.1)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n/a, n/a, -1.3%) 연준 4월 베이지북 발표 유럽> 1분기 유로권 GDP YoY (n/a, 0.0%, 0.0%) ECB 금리 공시 (n/a, 1.00%, 1.00%)	韓> 1분기 GDP YoY (n/a, n/a, 2.8%) 4월 통화공급 M2 MoM (n/a, n/a, 0.0%)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n/a, 38.3만) 4월 소비자 신용지수 (n/a, \$10,650B, \$21.355B) 유럽> BoE 금리 공시 (n/a, 0.50%, 0.50%)	韓> 금통위 금리 결정 (n/a, 3.25%, 3.25%) 美> 4월 무역수지 (n/a, -\$49.5B, -\$51.8B) 日> 4월 경상수지 YoY (n/a, 7.5%, -8.6%)
11	12	13	14	15
韓> 5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유럽> (6/10) 프랑스 1차 총선 中> (6/9) 5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6/9) 5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6/9) 5월 산업생산 YoY (6/9) 5월 소매판매 YoY (6/10) 5월 무역수지 (6/10) 5월 수출 YoY (6/10) 5월 수입 YoY 日> 5월 통화량 M2 YoY	美> 5월 수입물가지수 YoY 6월 IBD/TIPP 경기낙관지수 5월 월간 재정수지 中> 5월 신규 위안 대출 (미확정) 5월 통화공급 M2 YoY (미확정)	韓> 5월 실업률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5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유럽> 4월 유로권 산업생산 YoY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분기 경상수지 5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유럽> 5월 유로권 CPI YoY 中> 5월 실질 FDI YoY (미확정)	韓> 5월 수출물가지수 YoY 5월 수입물가지수 YoY 美> 6월 뉴욕주 제조업지수 5월 산업생산 MoM 6월 미시건대 소비심리평가지수 유럽> 4월 유로권 무역수지 SA 日> BoJ 정책금리 공시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이전치는 수정 값 미반영분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

